

## ‘통속’을 통한 ‘리얼리즘’의 심화

— 엄홍섭의 『세기의 애인』(1939) 재독

김미연\*

### 요약

이 논문은 『세기의 애인』을 재독하여, 연재분과 단행본의 차이를 밝히고 작가가 추구한 리얼리즘의 형상화 방식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연재 위주로 분석된 까닭에, 완결된 형식의 측면에서 인물의 심리 변화와 현실 대응 방식이 면밀하게 해석되지 않았다. 또한, 남성 주인공의 태도가 곧장 작품의 특성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재독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논의하였다. 첫째, 『세기의 애인』이 당대 논자들에게 평가된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결과 통속과 예술이 어우러졌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도식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연애소설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 시기 엄홍섭은 ‘리얼리즘’과 ‘로맨티즘’을 융합하는 창작 방식을 지향하였고, ‘있는 그대로’가 아닌 ‘있어야 할 것’을 소설에 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작가의 지향이 소설에 반영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등장인물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남녀 지식인이 취업과 연애 문제에 고민하는 장면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특수한 개인이 아닌 보편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남성 인물이 현실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떠난 장면과 여성 인물이 관계의 속박을 극복하고자 시도한 대목은 초월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등장인물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약동하는 삶’의 가능성을 읽어내고자 하였고, 이 작품을 밀도 있는 리얼리즘 소설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 엄홍섭, 통속소설, 리얼리즘, 현실 인식, 지식인, 신여성, 인텔리

\* 성균관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목차

1. 서론 : 엄흥섭 '다시 읽기'
2. 시대적 논점 :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문제
3. 인텔리의 현실 인식과 갈등, 초월의 가능성
4. 신여성과 구여성, 주체화하는 여성들
5. 결론

## 1. 서론 : 엄흥섭 '다시 읽기'

본고는 엄흥섭(嚴興燮, 1906~1987)의 『세기의 애인』(1939)을 재독하여 '통속소설'이 달성한 리얼리즘의 일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남성 주인공뿐 아니라 여성 인물에도 주목하여 1930년대 중반의 시대상이 재현된 지점을 해석하고, '새로운 인간형'의 발견이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김종만은 "시대적 기분인 우울을 다분히 가진 인물"<sup>1)</sup>이라거나 "중만이라는 청년이 지닌 시대적 우울은 현실의 어떤 측면과 이어져 있는가에 대한 천착이 따르지 않고 자신의 내적인 고민이 어디에서 연유하며 그것의 시대적 의미가 무엇인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 청년의 고민 그 이상의 것이 되지 못했다"<sup>2)</sup>등의 평가가 덧붙지만, 여성 인물에 관한 입체적인 조명은 미비한 실정이다.<sup>3)</sup> 서사 전개에 있어 여성 인물 3인(손보라, 박경옥, 김종만의 아내)은 김종만과 뿔 수 없

1) 민병휘, 「조선문단을 지키는 청년 작가론」(상), 『신동아』 5:9, 1935.9, 168면. 이 글에서 자료를 인용할 때 한자어는 한글로 고쳤으며 필요에 따라 괄호 안에 병기하였다. 이하 띄어쓰기, 현대어 수정, 밑줄과 강조는 인용자의 것이다.

2) 김재용, 「식민지시대와 동반자 작가: 엄흥섭론」, 『연세어문학』 20,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63-164면.

3) 예컨대, 등장인물 중 손보라를 언급하되 별도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거나(김재용, 위의 글, 같은 면), "부정적 권력자에 희생된 인물"(박선애, 「엄흥섭 소설 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2, 72면)로 해석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격이나 행동 방식에서도 각기 다른 개성을 드러낸다. 이에 이 소설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남성 인물뿐 아니라 여성 인물 양상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요청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단순 ‘애정 소설’이라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세기의 애인』을 현실에 육박한 작품으로 재인식되게끔 하는 것이 이 글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좀 더 멀리 보면 이 논의는 ‘통속소설’의 문학적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시도이다.

『세기의 애인』은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신동아』에 1935년 2월부터 8월까지 7회에 걸쳐 연재되었고, 수록된 삽화는 이마동(李馬銅, 1906~1981)이 그렸다.<sup>4)</sup> 이후 단행본은 1939년 광한서림에서 ‘현대문고’ 제1권으로 출간되었으며 1940년 영창서관에서 재판되었다.<sup>5)</sup> 연재본은 24장에서 마무리되었지만, 단행본은 24장 일부와 25장이 추가되어 결말이 상당히 달라졌다.<sup>6)</sup> 지금까지 선행연구는 대체로 연재본을 중심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덧붙은 내용을 고려하여 재독할 필요성이 있다. 결말의 수정은 작가의 현실 대응 인식을 관찰할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주목을 요한다.

엄홍섭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금(解禁)’ 이후 담론장이 형성되어, 199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제출되었다.<sup>7)</sup> 『세기의 애인』(「고민」)에 초점을 두

4) 엄홍섭, 「고민」(전 7회), 『신동아』 5:2-5:8, 1935.2-8.

5) 본고는 『신동아』 연재본과 1940년 재판(영창서관)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 소설은 인천문화재단과 한국근대문학관이 기획한 한국근대대중문학총서 ‘틈’ 9권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엄홍섭, 김미연 편, 『세기의 애인』, 홍시, 2023.

6) 구체적으로 연재본의 24장은 200자 원고지 기준 25매 분량이었지만, 단행본에서는 26.4매가 추가되어 총 51.4매가 되었다. 25장의 경우 7.6매이다. 결과적으로 연재본과 단행본은 분량상 약 34매가 차이 난다.

7) 1990년대 연구 성과는 박진숙, 「1930년대 한국 동반자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이호규, 「엄홍섭론」, 연세대 석사논문, 1991; 이봉범, 「엄홍섭 소설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1992; 박선애, 「엄홍섭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2; 배팔수, 「엄홍섭 연구: 해방 전후의 귀향의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연구』 7, 한국어문연구학회, 1992, 231-245면; 정미경, 「엄홍섭 소설 연구: 1930년대 휴머니즘론과 ‘예술소설’ 논의와 관련하여」, 강릉대 석사논문, 1993; 김형봉, 「엄홍섭 소설 연구: 작품 경향의 변모를 중심으로」, 홍익대 석사논문, 1995; 정

면, 장명득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의 논의는 김중만을 “지식인의 정신적 방황”이 부각되는 인물로 평가하였고, 작가 임홍섭이 주인공의 고민을 통해 식민지 교육의 모순점과 식민지 정책으로 인한 지식인의 물질적·정신적 측면에서의 소외현상을 제시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어서 여성 인물 중 손보라에 관하여 “여성 스스로의 극복 의지는 드러내지 못하고 시대적 상황에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고, 박경옥에 대해서는 “신식 여성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에 속하면서도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인물”로 제시하였다.<sup>8)</sup> 이러한 분석에 대해 일면 동의할 수 있지만, 단행본이 아닌 연재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까닭에 김중만의 변진을 조명할 수 없었다. 또한 여성 인물의 ‘미달’과 ‘결락’에 초점을 둔 서술은 다른 각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 여성 인물에 대한 다른 해석은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본문에 앞서, 임홍섭의 이력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sup>9)</sup> 임홍섭은 1925년 「엄마 제삿날」과 「꿈속에서」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하였

하준, 「임홍섭 소설 연구, 호서대 석사논문, 1995; 전홍남, 「임홍섭 소설의 변모과정과 그의 의미」, 『국어문학』 31, 국어문화회, 1996, 415-445면; 이주형, 「임홍섭 소설 연구: 제재 및 작가의 식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0, 국어교육학회, 1998, 237-269면; 최경옥, 「임홍섭 소설 연구: 작품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동아대 석사논문, 1999. 등이 있다. 2000년대 이후의 논의는 조명기·이재봉, 「임홍섭 초기 지식인 소설 연구」, 『어문학』 92, 한국어문화회, 2006, 401-426면; 조명기·이재봉, 「임홍섭 단편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소멸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화회, 2006, 258-289면; 김윤진, 「해방기 임홍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405-444면; 이승윤, 「임홍섭 소설의 변모양상과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귀환일기」와 「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171-196면 등이 있다. ‘임홍섭을 표제로 내세운 연구는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최근까지 20-30편 정도로 조사되는 가운데, 1990년대 일부 연구와 장명득(2007)의 박사논문 이후에는 『세기의 애인』을 언급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8) 장명득, 「임홍섭 소설 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2007, 40-43면.

9) 임홍섭의 연보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정호웅, 「임홍섭의 농촌 현실 증언과 휴머니즘」, 임홍섭, 『한국해금문학전집 7: 임홍섭』, 삼성출판사, 1988, 402-411면; 이승윤, 「추방과 탈주, 경계인의 문학적 실천: 임홍섭론」, 임홍섭, 이승윤 편, 『임홍섭 선집』, 현대문학, 2010, 389-412면.

다.<sup>10)</sup> 1929년에는 카프에 가맹하였고 단편 소설 「흘러간 마을」(『조선지광』, 1930.1), 「파산선고」(『대중공론』, 1930.6), 「꿈과 현실」(『조선지광』, 1930.6), 「지옥탈출」(『대중공론』, 1930.7), 「출범전후」(『대중공론』, 1930.9) 등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 「흘러간 마을」은 당시 호평 일색이었다. 예컨대, “엄홍섭 씨의 「흘러간 마을」은 이효석 씨의 「노령근해(露嶺近海)」와 함께 1월 창작 계의 가장 큰 수확이다. 제재에 있어서 조선의 계급적 비극을 여실히 파악하여 계급의식을 상당히 고조한 점, 표현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수사가 없이 긴장(緊張)한 감정을 계속시키는 점, 용어에 있어서 가장 세련된 아어(雅語)만을 사용치 아니하고 지방 사투리를 그대로 가져가다 곳곳하게 서술한 점 등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조화된 참 ‘프롤레타리아’ 작품이다”<sup>11)</sup>라는 평은 소설 등단과 동시에 주목받은 작가였다는 점을 증명한다. 민병휘(閔丙徽)도 엄홍섭에 대해 “일 무명작가로 『조선지광』에 「흘러간 마을」을 쓴 뒤로 세상에 알려진 작가”<sup>12)</sup>라고 평하였다.

이후 개성 지부에서 활동하던 엄홍섭은 1931년 이적효, 민병휘, 양창준 등과 함께 카프 지도부를 ‘적색 상아탑’이라 비판하였고, 이들은 이 『군기(軍旗)』 사건으로 카프에서 제명되었다.<sup>13)</sup> 여기서 민병휘는 당시 연재되

10) “오늘은 어머님의/ 제삿날이다/ 팔 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실 제/ 날 사랑 다 못 하고/ 떠나 가실 제/ 그때에 엄마가/ 우시던 양이/ 어제같이 눈앞에/ 떠올라 온다/ 아 어머니 어머니/ 몹시 그리워”(엄홍섭, 「(당선 소곡) 엄마 제삿날」, 『조선문단』 11, 1925.9, 93면); “나는 끝없는 꿈속에서/ 어제 날도 꿈속에서/ 오늘도 꿈속에서/ 내일도 꿈속에서/ 나는 꿈속에서 온다/ 언제 나 언제나/ 개암이 챗바퀴 돌듯하는/ 이 꿈이 어찌먼 깨이러는가”(엄홍섭, 「꿈속에서」, 『동아일보』, 1925.9.12, 3면)

11) 함일돈(咸逸敦), 「1월 창작평」(2), 『동아일보』, 1930.2.1, 4면.

12) 민병휘, 「조선 프로작가론」, 『삼천리』 49, 1932.9, 86면. 이후 민병휘는 엄홍섭이 주장한 리얼리즘을 실제 작품 속에 온전히 투영시키지 못해 “로맨티시즘을 복사하는 작가”로 전락하였다고 평가하였다(민병휘, 「조선문단을 지키는 청년 작가론」(상), 『신동아』 59, 1935.9, 167면, 박선애, 「엄홍섭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2, 5면 재인용).

13) “(…) 맹형 중 이적효, 양창준, 민병휘, 엄홍섭 등 네 사람을 제명하여 버리고 예술동맹 개성 지부의 집행위원 전부에게 정권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개월 전부터 그들은 반(反)

던 「고민」을 비판적으로 읽은 인물이기 때문에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엄홍섭은 카프 제명 이후 ‘동반자 작가’<sup>14)</sup>로 불리며 계급문학과 공통분모를 유지하였다. 이 시기 「그대의 힘은 약하다」(1932.1), 「온정주의자」(1932.3-5) 등에서 불세비키적 논리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논의된다. 1938년에는 연작소설 『과경(破鏡)』이 “유산계급자를 매도하고 좌경 사상을 고취하는 소설”이란 이유로 출판금지를 당하면서 서대문 형무소에 기소되었다.<sup>15)</sup> 해방 후 좌익 계열 문학 단체인 조선문학가동맹의 인천지부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1951년 월북하여 왕성한 활동을 이어간 다작의 작가로 기록된다.

1930년대 중·후반의 엄홍섭은 소위 ‘통속소설’ 창작에 몰입했다. 대표적으로 『행복』, 『봉화(烽火)』, 『인생사막(人生沙漠)』에서 그 색채가 두드러진다.<sup>16)</sup> 연재 시기(1935)를 기준으로 본다면, 『세기의 애인』(「고민」)은

- 
- ‘카프’적 분파를 결성하여 대중잡지 『군기』를 탈취하고 예술동맹의 조직을 파괴코자 한 까닭이라 한다.”(「프로에맹에서 4인 제명처분」, 『조선일보』, 1931.4.22.); 관련 논의는 장명득, 「『군기』 사건과 엄홍섭의 초기 소설」,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 99-123면 참조.
- 14) ‘동반자 작가’ 명명은 김기진, 「조선문학의 현재 수준」, 『신동아』 44, 1934.4; 유수춘, 「조선 현대 문예사조론」(3), 『조선일보』, 1933.1.5. 4면; 김두용, 「창작 방법의 문제,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동아일보』, 1935.9.1, 3면; 백철, 『신문학사조사』, 백양당, 1949, 236면; 박진숙, 「엄홍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1991, 99-114면. 등.
- 15) 「출판물 금지 요향: 『과경』」, 『조선출판경찰월보』 119, 1938.7.8.(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had\\_110\\_0190](http://db.history.go.kr/id/had_110_0190)); 박진숙, 「조선적 상황과 엄홍섭 문학」, 김인환 외, 『주변에서 글쓰기와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민음사, 2006, 315-352면; 『과경』은 엄홍섭, 박화성, 강영애, 이무영, 조벽암, 한인택이 돌아가며 쓴 연작소설로 1936년 4월부터 9월까지 『신가정』에 연재된 뒤 단행본은 1939년 중앙인서관에서 간행되었다.
- 16) 『행복』은 1938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전 62회)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었고 1939년 영창서관 명작전집 제7권으로 출판, 1941년에 재출간되었다. 『봉화』의 단행본 초판은 1943년에 성문당서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인생사막』은 『신세기』에 1940년 1월부터 1941년 6월(9회 미완)까지 연재된 뒤, 1942년 성문당서점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1949년 학우사에서 재출간되었다.

이외에도 「우울의 궤도」(34.12), 「순정」(35.1), 「악희」(35.1), 「절연」(35.1), 「윤락녀」(35.3) 등에서 애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묘사하였다(박진숙, 「엄홍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91, 109면).

작가의 일대기에서 전환과 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속소설’로는 초창기 작품에 해당하고 그전까지 단편소설 위주로 창작한 것과 달리 중편으로는 첫 시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게다가 1935년은 한국 문학사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1935년은 10년을 이어온 카프 활동이 일체의 탄압으로 마감된 해였다. 1934~1935년, 카프 2차 검거 사건이 펼쳐지며 대대적으로 사회주의 계열 작가들이 진압되었고, 그 결과 프로 작가들의 창작이 위축되었으며 계급과 사상에 중점을 둔 문학은 발표되기 쉽지 않았다.<sup>17)</sup> 카프 해산 이후 사회주의 계열 작가들은 이념에 기반한 문학보다는 전향소설이나 통속소설로 일컬어지는 작품을 창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인의 소시민성을 다루는 내용이 많이 다뤄졌다.<sup>18)</sup> 이러한 문학사적 맥락과 작가 개인의 이력을 염두에 두고 『세기의 애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후 본론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2장에서는 『세기의 애인』(「고민」)이 당시 독해된 방식 즉, 논평의 초점을 밝힐 것이고, 3장에서는 남성 인물 김중만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법을 분석한 뒤, 4장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사회적 위치를 검토하며 ‘태도 변화’ 양상을 탐색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세기의 애인』에 대한 해석이 다채롭게 확장되기를

17) 박선영에 따르면, “전향의 트라우마 경험 자체가 많은 구 카프 작가의 문학적 주제가 되었다”고 분석된다. 그 근거는 “노골적인 활동적 작품이 금지되었던 시기에 카프 해산에 대한 간절한 글들이 계속 쓰여졌고, 어떤 면에서 더 많은 프로 작가들이 끈질기고 미묘하게 카프의 임무를 지속했기 때문이다(박선영, 나병철 역, 『프롤레타리아의 물결: 식민지 조선의 문학과 좌파문화』, 소명출판, 2022, 124면).

18) 권보드래에 따르면, 1930년대 후반에 창작된 ‘전향소설’은 전향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작가 자신의 주제를 문제삼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기영의 「적막」(36.7), 「설」(38.5), 「수석(燧石)」(39.3), 「고물철학」(39.7), 한설야의 「태양」(36.2), 「임금(林檎)」(36.3), 「철로교차점」(36.6), 「이녕」(39.5), 「모색」(40.3), 「파도」(40.11),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37.6), 「춤추는 남편」(37.10), 「제퇴선(祭退膳)」(37.10), 「요지경」(38.2), 「포화(泡花)」(38.11), 「녹성당」(39.3), 그리고 「경영」(40.10), 「맥」(41.2), 「등불」(42.3)이 그에 속한다(권보드래, 「1930년대 프롤레타리아작가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14-16면).

전망한다.

## 2. 시대적 논점 :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 문제

이 장에서는 엄홍섭의 『세기의 애인』이 당대 논자들에게 독해된 방식을 검토하며 논평의 초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당시의 감각을 통해 이 소설을 바라보는 관점을 재구성하고, 이 작품에 접근하는 열쇳말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통속소설은 대체로 ‘오락성’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미학적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엄홍섭은 통속소설이 “일반적으로 대중의 저속한 흥미와 오락적 호기심을 조장하는 도구에 빠지기 쉬운 위험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sup>19)</sup>다고 설명하였다. 『세기의 애인』은 엄홍섭 스스로가 ‘통속성’ 짙은 소설로 명명한 바 있다.<sup>20)</sup> 그러나 출판되었을 당시의 서평을 살펴보면, 세간의 평가는 ‘통속’으로 일관되지 않았다. 먼저, 동반자적 입장에서 평론 활동을 한 홍효민(洪曉民, 1904~1975)의 서평을 살펴보자.

(...) 통속소설에는 흥미 본위에 입각하여 사건의 암합(暗合) 또는 우연을 일삼기 때문에 그 구경(究竟)이 가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논위(論謂)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기 쉬운 것이다. 그러면 예술소설은 문장이라든가 세계관, 인생관에만 치중하여 혹시는 무슨 종류의 ‘이데올로기’ 결정

---

19) 엄홍섭, 「통속작가에 일언(一言)」, 『동아일보』, 1937.6.24, 6면.

20) “이 『세기의 애인』은 내가 처음으로 많은 독자 대중을 상대하고 쓴 작품이요, 또한 분량을 나누어 연재한다는 월간지의 특수한 사정과 정책과 제한 밑에서 쓴 것으로써 작품 구성상의 우연적 사건이라거나 통속적 무리가 많은 것을 나는 이번 이 작품의 인쇄 교정을 하면서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말하자면 이 작품은 내가 쓴 통속물 가운데 하나이며, 단행본으로 내어놓기 부끄럽지 않은 바가 아니나(...)”(엄홍섭, 「소감」, 『세기의 애인』, 영창서관, 1940(재판), i-ii면.)

이 있을는지 모르나 역시 생경한 것이 되고 있는 것은 흔히 보는 바 소설에서의 통폐(通弊)인 것도 같다. (...) 조선에서는 아직도 소설 도(道)에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교류시켜 작품을 구성하는 작가가 드문 것이다.

그런데 조선 문단의 중견 작가로 가장 많이 통속과 예술을 교류해 보려는 작가가 있으니 이는 이번 『세기의 애인』을 낸 엄홍섭 씨인 것이다. 씨의 작품은 ‘스케일’이 크면서 그것에 대하여 구니(拘泥)됨이 없이 유유히 전개시키어 가는 대담성이 있는 작가이거나와 이번 『세기의 애인』은 ‘김종만’이란 인물과 ‘손보라’라는 ‘히로인’에 의하여 얽혀진 극히 단순하면 서도 ‘데리케-트(delicate-인용자)’한 애욕의 문제를 세기적(世紀的)인 곳에 붙인 것이 이 작품의 특색인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이 세기에 사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다시금 역연(歷然)히 볼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심각히 느낀 것이다. 곧 부모의 강제 결혼에 의하여 기혼자가 되고 또 연애의 눈이 떠 사랑의 상대자를 찾았을 때 일어나는 문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 짓고 있는가. 비극인 것만은 사실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결혼과 이혼이 동시에 행해지지 아니치 못하는데 이제 엄 씨는 우리에게 **새로운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이 책은 일독의 가치를 충분하다고 하겠다.<sup>21)</sup>

홍효민은 통속소설의 특징을 정리한 뒤 예술과 통속의 관계를 따진다. 그에 따르면, 소설이 예술성에 초점을 두면 무미건조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통속성이 두드러지면 흥미 위주가 되므로 작품의 영속성이 불명확해진다. 즉, 예술과 통속, 이 두 가지 조건을 고루 갖춘 소설이 창작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소 이분법적이기도 하지만, 당시 창작된 여러 소설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창작 세대 가운데, 홍효민이 엄홍섭의 소설을 상찬한 이유는 예술과 통속을 조화

21) 홍효민, 「북 리뷰, 엄홍섭 저 『세기의 애인』, 『동아일보』, 1939.5.12, 3면.

롭게 병존시켰기 때문이다.

소설의 제목에 포함되기도 한 ‘세기적(世紀的)’인 문제는 인물이 시대와 마찰하는 갈등을 일컫는다. 특히 『세기의 애인』은 ‘연애’라는 키워드로 시대적 문제에 접근한다. 홍효민이 거론한 것처럼 당시 ‘자유연애’에서 가장 큰 난관은 결혼 주체의 의지와 무관한, 부모의 강요에 의한 조혼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남성 — 구여성 본처 — 신여성 연인으로 이어지는 세 인물의 관계는 1930년대 문학의 소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근대 소설의 시작부터, 전근대와 근대 시기 내내 다뤄진 사회적 이슈였다.<sup>22)</sup> 이 소설 역시 조혼한 남성 ‘김종만’이 신여성 ‘손보라’를 만나면서 발생한 심리적 갈등을 다룬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남성이 본처를 버리고 신여성과 이어지는 통속적인 연애소설과 달리, 얽힌 관계를 극복하고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을 제시한 데에 있다. 게다가 구여성 본처가 순종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체적인 인물로 변화하는 장면은 통속소설에서 상당히 드문 사례이다. 이것이 단적으로 홍효민이 해석한 ‘새로운 처방전’인 셈이다.

카프 출신 시인이자 비평가인 권환(權煥, 1903~1954)도 비슷한 논조로 고평하였다. 권환은 “그(엄홍섭-인용자)는 아무런 선입관도 없이 아무런 초조도 없이 오직 냉정하게 이 현실을 응시하여 또 아무 가식과 분장 없이 현실 그냥 그대로 그려 놓은 것이 즉 전형적 현대 ‘인테리’ 청년 남녀의 고민 상이고 그것이 즉 이 『세기의 애인』”이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청년 남녀는 주인공 김종만과 손보라를 가리키는데 두 인물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점이 중요하다. 지식인 계층에 속하는 남성과 여성이 각자의 현

22) 조혼으로 인한 갈등 상황은 1930년대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는 지금 20세 청년이운데, 제가 나이 불과 15세 때 부모님들의 합의로써 저보다 한 살이나 더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물과 같아 어언간 제 나이가 차게 되자 차차 이성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는 저의 처가 한시라도 보기 싫고 집에 있는 것이 여간 괴롭지 않습니다. (...) 그러는 중 수개월 전부터 근처에 사는 처녀와 우연히 가까워지게 되어 두 사람 사이는 남도 알지 못하게 뜨거운 사랑이 불타오르며 (...)” (“젊은 아내 버리고 재혼할까요”, 『조선일보』, 1933.1.14, 5면)

실과 부딪히는 과정을 각각 묘사한 것이 이 소설의 중심적인 서사이기 때문이다. 권환의 논평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선의 ‘인테리’ 청년인 김종만의 생활 과정—봉건적 전통에 대한 반역, 충돌 거기에 따른 생활의 무한한 고민, 근대적 사상의 소유자이면서 현실을 극복할 만한 적극성, 활동력, 열정이 없는 무력자. 그러나 어디까지든지 현실과 타협할 줄 모르는 양심의 소유자.

또 ‘인테리’ 여성인 손보라의 성격—역시 양심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의지박약한 것. 현실을 극복, 추진할 만한 열정과 활동력이 없는 소극적인 성격.

그러한 청년 남녀의 연애도 역시 결코 향락적인, 유희적인, 또 범속적인 연애는 아닌 동시에 또 모든 장애를 타파, 추진할 만한 열정적, 적극적인 연애도 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고민으로 마치 그만 소극적 연애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밖에 될 수 없는 필연성이며 또 지금의 현실에 그러한 ‘모델’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현대 조선의 전형적 ‘인테리’ 청년 남녀의 전형적 성격, 전형적 생활 과정, 전형적 연애이다. 흥섭은 그것을 아무 무리와 조각이 없이 가장 사실주의적으로 심각하게 그려냈다. 그런 점으로 이 일 편은 훌륭한 ‘리얼리즘’ 작품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작품의 묘사 수법은 ‘리얼리즘’으로 일관되어 있으면서도 또 전편의 주류로써 관통해 있는 것은 ‘로맨티시즘’인 점이다. 이러한 작품은 단, 장편을 물론하고 흥섭의 모든 작품 가운데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층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 소설의 통속성과 예술성과의 교묘한 조화이다. 이 작품 속에는 통속성이라 할 수 있는 ‘우연’을 가끔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우연은 필연과 아무런 배치가 없으며 전체적으로 점거해 있는 예술성에 조그마한 영향도 주지 못하였다. 그 속에는 그의 세계관이 엄격하게 일관되어 있으면서 또 독자에게 소위 ‘통속’적인 흥미를 풍부하게 주니 최근 다른 작가들의 ‘로만’ 중에서 내포되어 있는 소위 통속성과 예술성의 모순, 고민을 흥섭은 어느 정도까지 극

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그의 독특한 ‘로만’ 창작 방법 이론을 작품으로 무언(無言) 실천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일 책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다.<sup>23)</sup>

권환의 논평에서 주목할 것은 ‘리얼리즘’에 대한 서술이다. 이는 현실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얼마나 짙진하게 묘사했는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 소설은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전형적 인텔리’ 계층에 속하는 청년 남녀에 주목한다. 신식 고등교육까지 받은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구시대적 인습이 점철된 곳이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 와 실천이 요구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이 소설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현실 사회의 전복이나 이념 같은 거대 서사를 설화하지 않으며 도래할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도 전하지 않는다. 초점화되는 것은 시대 앞에서 좌절하고 무기력해지는 인간, 그리고 방황하고 고민하는 인물 자체이다. 흥효민과 마찬가지로 권환 역시 통속과 예술의 조화에 주목하였다. 그는 두 요소가 모순되기 쉽지만, 엄홍섭이 그 모순을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즉, 통속적이지만 예술성이 가미된 소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주로 인물의 현실 극복 양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위의 두 추천사에서는 현실에 발 딛고 있는 인물들의 일상성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전개 방식이 ‘연애소설’의 보편적인 서사 구조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통속’의 굴레에 갇히지 않았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여러 차례 ‘전형적’이 강조되는 것도 이 소설이 ‘전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흥효민과 권환이 통속성과 예술성이 공존하는 소설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평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군기』 사건’을 함께 도모했던 민병휘는 강도 높게 이 소설을 비판하였다. 민병휘는 그전에도 자신의 동지

23) 권환, 「엄홍섭 씨 근작 『세기의 애인』, 『조선일보』, 1939.5.22, 4면.

를 향해 “小부르주아식 연애를 하려면 계집의 치마에 쌓여 죽어버려라.”<sup>24)</sup>라고 하며 ‘연애이상주의’를 조소하기도 했다. 그의 글 중 「고민」의 비판 지점은 다음과 같다.

(…) 통속소설에서 우리가 소득한 것은 이 조선 문단에 장편소설 일 편이 더 늘어났다는 것밖에 다른 것은 없다.

이 ‘인텔리’를 중심으로 한 애욕, 애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갈등 거기에 또한 생겨나는 고민 — 이것은 아직껏 누구나 써왔던 작품이요, 이러한 경향을 배격하면서 좀 더 진실한 인간들의 움직임을 써달라는 것이 작가에게 바라는 현재 독자의 소원이다.

그러나 작가 엄 씨는 이 애욕 문제로 ‘고민’하는 인텔리들에게 다른 그 어떠한 위대한 업적이 있기를 바랐다. 이것이 문제되는 ‘리얼리즘’과 대립되는 ‘로맨티시즘’이다.

보혁의 업적을 소설의 부차적으로 삽입하고서 애욕 문제 — 현대적 부르주아 연애 — 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장편을 쓴 작자의 심경이 엿보고 싶으며 왜 더 진실성(작가로서)을 보여주지 않는가? 하는 불만이 있기도 하는 것이다.(…)25)

민병휘의 언설은 ‘통속소설’에 대한 비판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이 소설의 주된 서사인 연애 문제는 삼각관계로 치환할 수 있고, 이는 그간 술하게 쏟아져 나온 소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사회주의자 손보혁의 실종(혹은 잠적)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차치한 방식은 ‘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한다. ‘고민’하는 청년 인텔리에 대한 전망이 부재하다는 것 또한 큰 난점일 수밖에 없다. 위의 인용에서 “부르주아 연애”라고 지적한 이유는 주인공의 출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남성 주인공 김종만의 경우 “18년 동안 긴 세월 배움의 사다리

24) 민병휘, 「애욕 문제로 동지에게」, 『삼천리』 3:10, 1931.10, 89면.

25) 민병휘, 「조선문단을 지키는 청년 작가론」(상), 『신동아』 5:9, 1935.9, 168면.

를 밟아올 때 그는 비교적 학비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난관이 없었”<sup>26)</sup>으며, 졸업 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정도로 빈곤한 상태는 아니다. 고향에서는 다달이 생활비를 보내주며 대학 공부를 시키느라 기와집을 팔고 초가집으로 옮긴 상황이긴 했어도 부친은 유명 한문학자에 형은 지수성가한 실업인이었다. 여성 인물 손보라도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사회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니 빈곤층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박하여 문화를 누릴 수 없는 계층은 아니기 때문에, 민병희는 두 사람의 관계를 부르주아적 연애로 명명한 것이다.

다만 민병희의 글(1935.9)이 소설 연재(1935.2~8) 직후에 발표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조한 대로 연재분과 단행본은 결말이 다르기 때문에, 서평의 발표 시기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엄홍섭이 위와 같은 비판을 의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앞당겨 말하면, 단행본에 새로 덧붙은 결말에는 등장인물들이 ‘고민’에 머물지 않고 현실 세계를 초월할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인공이 여성, 사회와 얽힌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다른 삶을 모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수정된 결말을 통해 연애 문제에 고립되지 않은 남녀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준 셈이다. 새로운 결말 역시 추상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종만이 향한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러 떠난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막연하게 남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보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통속’에 대한 비판을 일부 갱신한 점은 눈여겨볼 만하며, 상투적인 마무리가 아니라 작가가 고민한 흔적이 내포된 면에서 강조할 만하다.

홍효민, 권환, 민병희 세 논자가 주목한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의 관계이다.<sup>27)</sup> 이들은 당시 문단의 논쟁

26) 엄홍섭, 『세기의 애인』, 영창서관, 1940(초판 1939), 29면

27) 이는 카프 해산기 무렵부터 발생한 ‘창작방법 논쟁’으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 1930년대

주제였던 ‘창작 방법론’과 관련하여 『세기의 애인』을 독해하였다. 홍효민과 권환의 경우 두 요소가 조화를 이룬 소설로, 민병희의 경우 ‘로맨티시즘’적인 소설로 해석하였다. 그렇다면 엄홍섭은 실제 견해는 어떠한가. 엄홍섭은 두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리얼리즘’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인생 생활의 진실성을 아무런 장식 없이 소박하게 묘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로맨티시즘’이란 아직 정확한 완전한 정의는 없다 하더라도 인간 생활의 진실성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기 위하여 어떤 장식을 (꿈, 공상, 이상 등) 집어넣어 좀 황홀하게 그려진 것을 말하는 것이나 아닌가 생각한다.”<sup>28)</sup>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엄홍섭은 세부적인 분류를 제시한다. 리얼리즘은 부르주아 리얼리즘과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으로 나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로맨티시즘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로 나뉜다. 소련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뿐만 아니라 ‘×××로맨티시즘’도 주창되었다고도 전하는데, 여기서 ‘××× 로맨티시즘’은 ‘혁명적 낭만주의’로 바꿔 읽을 수 있다.<sup>29)</sup>

잘 알려진 대로 소비에트 작가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중반 작품 창작에 있어서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사회주의 리얼리즘’ 방법론까지 더해져 상당한 내용이 발표되었다. 정치와 예술에 대한 미학적 정합성이나 사상성과 예술성에 관한 논쟁 사례를 본고에서 모두 다룰 수 없으므로, 이 논문은 『세기의 애인』과 관련된 언설만 제시하였다. 관련된 선구적인 연구는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28) 엄홍섭, 「창작방법, 리얼리즘 작가(6): ‘리얼’과 ‘로맨’의 융합」, 『조선중앙일보』, 1935.7.13, 4면. 엄홍섭의 「문단시감」(『신동아』 5:9, 1935.9)의 두 번째 주제인 “리얼리즘의 적극성과 ‘로맨티시즘’의 적극성에 대하여”는 「리얼’과 ‘로맨’의 융합」의 요약에 가깝다.
- 29) 1930년대 중반 낭만적 정신을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은 임화이다. 그는 “몽상의 낭만주의에 전력을 가지고 찬동한다”고 밝혔다. 이때 몽상은 즐거움과 용기가 상반(相反)하는 것으로써, 진실한 꿈은 미래에의 지향과 창조를 체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임화는 조선의 문학에는 꿈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그는 조선 문학이 성실한 로맨티시즘과 광의의 리얼리즘이 영속적으로 통일된 문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임화, 「위대한 낭만적 정신: 이로써 자기를 관철하라!」(전 3회), 『동아일보』, 1936.1.1-4, 6면). 1934년에 발표된 「낭만적 정신의 새로운 구조」(『조선일보』, 1934.4.19-25)를 참고하면 임화가 주장한 낭만주의는 ‘혁명적 낭만주의’이다.

새로운 사회의 건설과 그 과정을 적극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기존의 리얼리즘과 달리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 그리고 ‘혁명적 낭만주의’를 기본 축으로 구성·발전하였다.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주의에 대한 적극적 전망을 작품에 담아내는 미학적 원리로, 미래에 대한 꿈, 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사회주의의 성공적 건설 등을 작품에 담을 수 있다. 이 혁명적 낭만주의는 사회자들이 영감과 꿈을 가져야 한다는 레닌의 주장에 연원을 두고 있다.<sup>30)</sup> 엄홍섭의 1935년 이후 소설, 특히 『세기의 애인』에 위와 같은 사회주의 창작 강령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위 요소에서 반영된 것을 구태여 찾으려 하면 ‘미래에 대한 꿈’ 정도이다. 다만 카프 해산 이후의 시대적 제약과 전향으로 인해 적극적인 반영은 하지 못(안)했던 것은 아닐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엄홍섭은 발자크, 투르게네프, 고골, 안톤 체홉 등의 문호를 열거하며, 이들을 리얼리스트나 로맨티스트 중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두 요소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그가 경계하는 것은 “현실 그대로를 사진 찍듯 하는 소극적 리얼리즘”과 “현실을 너무 장식하고 가식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그 현실에 만족하게 하고 또는 그 현실에 타협하게 하는 소극적 로맨티시즘”이다. 요컨대 엄홍섭은 두 요소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는 일은 무용하며, 두 요소의 ‘적극성’에 주목하여 융합해야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다.<sup>31)</sup> 이러한 주장에는 “문학이 인생의 진실을 그리는 것이라면 그 방법이 ‘로맨’이든 ‘리얼’이든 결국은 동일한 ‘진실’을 그리는 것

30) 이상의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항목을 토대로 기술하였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0771>

31) ‘리얼’과 ‘로맨’의 절충 혹은 조화를 내세운 작가로 이효석을 거론할 수 있다. 이효석은 리얼리즘이 진실한 문학의 최후 목적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궁극의 리얼리즘은 문학을 상실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소재의 구성은 주관의 일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부터 낭만이 포함되었다고 말하며, 문학이란 문학되는 순간부터 낭만적 소질의 운명을 짐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리얼과 낭만은 동시에 존재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이효석, 「1934년 문학건설, 창작의 태도와 실제(9): 낭만, 리얼 중간의 길」, 『조선일보』, 1934.1.13, 6면).

의 별것들 아니”라는 의식이 뒷받침되어 있다.<sup>32)</sup> 또한, 어느 하나의 조류만 맹신할 수 없는 점을 짚기도 했다.<sup>33)</sup> 이러한 이유로 그가 1930년대 중후반의 시대상을 형상화하기 위해 중점을 둔 것은 ‘진실성’이었고, 그 중심 소재는 ‘연애와 감정’<sup>34)</sup>이었다.

1934년 엄홍섭은 “독자 없는 작품이 무슨 생명이 있으며 독자를 획득 못 한 작가가 무슨 존재의 이유가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그는 이전 소설에서 지주와 소작인,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에 벌어진 사실이나 생활을 주로 다뤘지만, 이후로는 취재(取材)를 확장하여 “청년의 사생활 같은 소극적 장면을 주선(主線)적으로 묘사”하여 독자 획득에 몰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sup>35)</sup> 1936년 논평에서도 “독자 없는 문학은 우리가 그 존재를 시인 해주지도 않거니와 그 자체가 벌써 존재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sup>36)</sup>이라고

32) 엄홍섭, 「창작 방법, 리얼리즘 작가(6): ‘리얼’과 ‘로맨’의 융합」, 『조선중앙일보』, 1935.7.13, 4면.

33) “낭만주의니 현실주의니 초현실주의니 또는 유물 변증법적 창작 방법이니 혁명적 로맨틱즘에 의한 창작 방법이니 또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에 의한 창작 방법이니 하여 그 특징을 달리한 허다한 주의(主義)와 창작 방법이 있지만 그것들 가운데 어떤 주의(主義)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창작된 작품이 가장 그 민족의 사회적, 정치적 형태와 기타 모든 자연적 환경, 경제적 환경의 특질을 표현하는데 적당한가를 구명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엄홍섭, 「세계관의 확립과 조선적 특수성의 파악」, 『조선일보』, 1935.7.9, 6면)

34) 로맨틱시즘에 대한 엄홍섭의 예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현실 생활에 있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로맨틱시즘을 우리들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일 직공이 휴식 시간에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휘파람을 부는 것이라거나 일 여공이 밤에 잠자리에 기대어 어떤 남직공에게서 받은 연문(戀文)을 다시 끄집어내어 읽는 것 같은 그러한 로맨틱시즘을 현실은 도저히 부정하기가 곤란하다.”(엄홍섭, 위의 글, 같은 면); “로맨티시즘이 공상적이지요, 이상적이지요, 비현실적인 데서 배격을 받으나 그러나 그것이 ‘로맨티시즘’의 특징인 것이다. 노동자나 농민이라고 꽃이나 달을 보고 ‘미(美)’를 감상할 감각이 없을 것인가? 예쁜 여인을 보고 눈을 찡그릴 것인가? 맑은 음악을 듣고 귀를 막을 것인가? 노동자에게도 농민에게도 사랑이 있다. 노래가 있다. 휘파람이 있다. 꿈이 있다. 즉 우리는 — 인간은 — 로맨틱시즘을 우리의 생활에서 부인(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엄홍섭, 「문단시감」, 『신동아』 5:9, 1935.9, 174면) 두 서술을 토대로 보면, 엄홍섭은 ‘로맨티시즘’을 주로 애정에 관련된 감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35) 엄홍섭, 「1934년 문학건설, 창작의 태도와 실제(10): 취재와 사실적 묘사」, 『조선일보』, 1934.1.14, 6면.

강조하였다. 중요한 것은 좀 더 넓은 대중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예술적인 측면 외에도 실감을 더하기 위한 소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이다. 특히, 위에서 거론한 “청년의 사생활”은 『세기의 애인』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기 때문에 눈길을 끈다. 따라서 엄홍섭이 대중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맥락에서 이 소설을 독해하기 위한 초점 중 하나로 인물의 일상과 심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묘사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엄홍섭의 정의를 토대로, 현실에 육박하는 인물 심리와 관계를 장식 없는 ‘리얼’과 장식으로서의 ‘로맨’이라는 두 축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세기의 애인』에 형상화된 ‘리얼’과 ‘로맨’의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인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특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전형성과 시대적 조건은 무엇인지, 현실에 대해 인물이 어떠한 태도와 행동을 취하는지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주인공 김종만과 여성 인물군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는 작가가 추구한 리얼리즘이 무엇인지, 소설에 재현된 ‘새로운 인물형’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특성을 띠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도이다.

### 3. 인텔리의 현실 인식과 갈등, 초월의 가능성

이 장에서는 ‘시대적 우울’을 안고 있는 남성 주인공 김종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그의 고민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고,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세기의 애인』의 주인공 김종만은 K 대학 영문과 출신이다. 예과가 청량리에 있던 것으로 묘사된 데에서 경성제국대학으로 짐작할 수 있다.<sup>37)</sup> 잘 알려진 대로 경성제대는 정원의

36) 엄홍섭, 「작가의 기본 입부와 조선 현실의 파악」(하), 『조선일보』, 1936.1.3, 22면.

37) “5년 전 그(김종만-인용자)가 청량리 대학 예과에 다닐 때 그는 창신동에 하숙을 두었다.”(엄

1/3만이 조선인이었으며 일본어 고전 해석 등 난이도가 상당한 입학시험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K 대학 졸업을 앞둔 이 청년은 앞날이 창창한 엘리트일 것이라 예상되지만, 졸업 후에는 더 이상 고향에서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처지이며 구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복 외에는 입을 옷도 변변치 않고 행여나 하숙집에서 월세를 다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직장이 있는 사람처럼 아침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곤 한다.

그의 구직 과정은 이 소설의 중심 서사 중 하나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준다. 조선인의 취업난은 이전 시기부터 진행 중이었다. 1920년대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까닭에 비판하여 자살(시도)하는 사건을 다룬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취업 사기 등 현대와 유사한 사고가 일어났다. 여기에 일본인 위주 채용과 내지인과의 임금 차별 등 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식민 본국에 중속된 경제 상황은 미국발 대공황(Great Depression)의 여파를 맞게 되었고 이에 따라 1930년대 실업률은 급증하였다. 이를 대변하기라도 하듯 1931년 한 기사에 따르면, 경성제대 졸업자 76명 중에서 47-8명이 취직하지 못한 채 가두(街頭)에 방황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sup>38)</sup> 또한, 면서기 10여 명을 뽑는 채용에서 13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자가 몰렸는데 그중에는 대학 출신도 있던 점이 기삿거리가 되었다.<sup>39)</sup>

홍섭, 『세기의 애인』, 영창서관, 1940(재판), 61면) 이하 본문을 직접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함.

38) 「성대(城大) 출신 미취직자 급수적 증가」, 『조선일보』, 1931.3.29, 2면.

39) “경북 상주 군청에서는 (...) 면서기 채용 시험을 보았다는데 임용 인원은 십여 인에 불과하나 백삼십여 지원자가 쇄도하여 (...) 취중(就中) 대학 출신의 이력을 가진 자도 있음을 볼 때에 조선인 생활 상태를 가히 알리라더라.”(「대학 출신이 면서기 지원, 취직난 여자」, 『동아일보』, 1928.8.30, 5면); “전문(專門) 출신으로 포부와 자격을 가지고도 부질없이 손을 드리우고 방황하는 이가 매년 격증하는 것은 항상 실지(實地)로 목격하는 바가 아닌가. 이 취직난이 사회 문제로써 우리에게 절박하여 오는 이만큼 확실히 걱정거리의 하나이다.”(「졸업생의 취직난」, 『조선일보』, 1928.10.1, 1면); “총독부 농림국 농산과에서는 일전에 미국 생산비 조사 정리를

유사한 맥락에서 고려대 교수를 역임한 조용만(趙容萬, 1909~1995)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나는 1932년 당시 경성제국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그때는 취직난이 심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갈 데가 없었다. 그래서 모두들 놀고 있었고 나보다 2년 선배인 이효석은 놀다 못해서 그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에 들어가서 신문, 잡지를 검열하는 일을 보다가 젊은 사람들의 비난과 자신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 달도 못 하고 나온 일이 있었다.”<sup>40)</sup> 여기서 언급된 이효석(李孝石, 1907~1942) 역시 경성제대 영문과 출신이었다. 총독부에 취직하였지만 ‘양심’ 문제는 걸림돌로 남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텔리 계층, 즉 지식인의 신념과 현실은 상충되는 요소이기도 했다. 이러한 요소가 이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 전제할 때, 본고가 주목하는 점은 인물이 갈등에 굴복하는지 저항하는지 따지는 결과 중심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부유하는 인텔리의 고민 그 자체와 내면과 세계가 불화하는 과정이다.

『세기의 애인』에서 김종만과 같은 대학의 법과 출신 박 군(연재에서는 P군)은 구직 끝에 함경도로 발령이 났다. 법과 출신은 비교적 용이하게 취업할 수 있었다곤 하지만 이 역시 순탄치 않았다. 박 군은 『취직전술』<sup>41)</sup>이라는 책을 탐독하는 것은 물론이고, ×× 과장, ×× 교수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이력서를 매일같이 갖다 바친 결과 구직에 성공한 사례이다. 직업을 위한 처세술이 묘사된 지점에서 『세기의 애인』(「고민」)이 연재되기 한 달 전, 같은 잡지에 실린 유진오의 「김 강사와

하기 위하여 임시 고원 30명을 모집하기로 되었는바 (...) 지원자 수요가 10배나 되는 301명에 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의 취직난을 여실히 폭로한 것인데 이 지원자들은 모두 중학 전문, 대학 졸업 정도의 인물들이라고 한다.”(『취직 전선에 십 대 일의 격전』, 『동아일보』, 1934.11.3, 2면)

40) 조용만, 「노교수와 캠퍼스와 학생」(2), 『경향신문』, 1974.6.21, 4면.

41) 1929년에 출간된 주모쿠 타카야(壽木孝哉)의 책으로 짐작된다(壽木孝哉, 『就職戰術』, 先進社, 1929). 이 책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 스미토모住友, 야스다安田 등을 소개하고, ‘친직을 생각하는 법(顧みて天職を靜視せよ)’이나 ‘취업에 직면하는 청년의 마음가짐(就職に直面せる青年の心得)’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T 교수<sup>42)</sup>를 떠올릴 수 있다. 이는 당시 취업과 직장 생활에서 개인의 실력보다 상급자의 권력이 상위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김중만은 인텔리 계층이 주로 희망했던 은행이나 회사, 관청에 취직하는 것을 꺼렸다. 굶어 죽을망정 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었음에도 ‘룸펜 인텔리겐치야’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온 편지는 그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김중만은 박 군이 권한 대로 이력서를 들고 보험회사 외판원 채용, 제약회사 잡지부를 찾았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자존심이 꺾인 그는 가정교사 구인 광고마저 내팽개쳐 버린다.

김중만은 경성 일대를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다. 이때 그가 느끼는 감정은 ‘우울’이다. 엄홍섭은 「우울, 명랑, 나」라는 기사에서 ‘명랑 양(嬢)에게 실연당하고 ‘우울 양(嬢)’과 교제하는 상황에 빗대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한 바 있다.<sup>43)</sup> 이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1935년 당시 카프 해산을 비롯한 사회적 의제와 관련 깊은 것이다. 또한, 그는 조선적 현실의 특수성을 염두에 둘 때, 절망적인 우울과 암담한 현실이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up>44)</sup> 백철 역시 한설야의 「임금(林檎)」(『신동아』, 1936.3)을 논하며 “애수, 자기의 실망, 우울, 불안은 금일에 있어 로맨티시즘 이전에 오는 시대적 심정일는지 모른다”<sup>45)</sup>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김중만은 “사색의 어둠 길을 더듬”으며 “암흑”과 “우울”(164)을 느꼈고, “우울한 기분에 못 이겨 거리로 뛰어”(166)나가곤 했으며, “후회, 절망, 불쾌 우울”(187)의 감정에 지배되어 “우울할 때면 으레 진고개를 거”(209)닐었다. 여기서 강조되는

42) 유진오, 「김 강사와 T 교수」, 『신동아』 5:1, 1935.1, 221-232·247면.

43) 엄홍섭, 「우울, 명랑, 나」, 『조선일보』, 1935.2.27, 4면.

44) 엄홍섭, 「문단시감」, 『신동아』 5:9, 1935.9, 174면.

45) 백철, 「낭만인가? 사실인가? 금월 창작의 음미(吟味)」, 『조선일보』, 1936.3.24, 5면.

것은 세기(世紀) 즉, 시대가 “젊은 사람들에게 고민과 우울을 조장”(240) 한다는 김종만의 말이다.<sup>46)</sup> 앞서 거론한 민병휘는 이와 같은 양상을 “시대적 우울”<sup>47)</sup>이라 명명하였다.

그렇다면 이 청년 인텔리가 ‘우울’에 지배된 원인이 무엇일까. 또한, ‘세기의 고민’이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는 방향의 이유와 밀접하다. 먼저, 예과 시절 심취했던 사상 문제로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열렬한 맑스리스트였다. 김종만은 예과 시절 손보혁(손보라의 오빠)과 어울리며 맑스주의를 접한 뒤, 사상에 깊이 공명하였다. 예컨대, “음악은 곱고 아름다운 멜로디를 가지고 인간의 정서를 함양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때 우리들의(젊은 사람들의) 굳센 이지(理智)의 힘에 너무나 농(濃)한 로맨틱한 멜로디의 독성을 주사하여 그것으로 하여금 향락적, 순간적이며 타락”(74)시킨다고 믿었다. 음악 중독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친구의 하모니카를 아궁이에 넣어버리거나 자신의 바이올린을 팔아 팝플릿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사상에의 심취는 오래가지 못했다. 대학의 한 교수는 김종만에게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인생을 망친다며 처신을 경고했다. 이에 김종만은 곧장 손보혁과의 관계를 끊어 버렸다. 때마침 손보혁을 포함한 사회주의 대학생들이 검거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김종만도 한 달간 잡혀 들어갔다가 기소유예로 풀려 나왔다. 이후 손보혁은 실종되었고 김종만은 대학으로 돌아왔다.

5년이 지난 뒤, 구직 시장에 나선 김종만에게 사상 문제가 직접적인 장

46) ‘세기를 강조한 대목은 단행본에 첨가된 내용이다.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나는 현대 여성이 싫어하는 우울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위 대학을 나와서도 취직을 못 하고 룸펜으로 지냅니다.”/ “그것은 종만 씨의 이상이 너무 높으신 탓이겠지요.”/ “이상이 높다고요? 하하하하!”/ “그렇지 않으면 세기의 고민이 다른 사람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세기의 고민! 세기의 고민!”/ 종만은 문득 속으로 한번 중얼댔다./ “그러시지 않아요? 옛날 우리 오빠처럼!”/ “그렇습니다. 세기는 젊은 사람에게 고민과 우울을 조장할 뿐이지요!”(240면)

47) 민병휘, 「조선문단을 지키는 청년 작가론」(상), 『신동아』 5:9, 1935.9, 168면.

해물이 된 것은 아니었다. 활동가로 나서거나 사회주의에 지속적으로 가담하는 면모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보혁과 과거 행위에 대한 부채 의식이 작용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손보라를 만날 때마다 손보혁을 떠올렸고, 그를 떠올리면 자신의 과거 ‘비겁한 행위’가 연상되곤 했다. “일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회, 먹어야 할 사회라면 왜? 일을 주지 않느냐? 왜 빵을 주지 않느냐?”(197)라고 분노하면서도 윤신의 폭이 좁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공포가 일부 작용하고 있을 터였다. 공포의 근원은 사상 문제 즉, 사회주의를 추구하다 사라져 버린 손보혁의 사례일 것이다.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텔리 계층의 방황과 번민은 비단 소설 속 인물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종만의 고민은 취업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유연애’, ‘자유 결혼’을 주장하던 그였지만, 반드시 결혼해야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아버지의 회유와 강요에 의해 스무 살의 나이에 두 살 적은 아내를 맞게 되었다. 부모가 정해준 혼사였으므로 아내에 대한 애정은 없었다. 그러나 조혼과 강제 결혼으로 인해 고향에 남아 있는 아내에 대한 죄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그는 애정 없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생각도 없지만 그것을 깨뜨릴 용기도 없었다. 결혼 여부는 여성 인물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며, 손보라에 대한 두 가지 죄책감(손보혁, 기혼) 중 한 축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황은 앞서 제시한 권환과 홍효민의 평론에서 제기된 ‘전형적’인 사회 문제였다. 마찬가지로 『만세진』(1924)의 이인화나 『고향』(1933)의 김희준처럼 청년 인텔리 중 다수는 조혼한 아내인 구여성 분처에게 애정이 없었으며 상황을 타개할 만한 방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작가는 바로 이 대목에서 독창적인 전개를 꾀한다. 김종만의 아내가 편지로 결별을 통보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지만, 아내의 결별 선언은 김종만에게 일종의 자유를 담보해준다. 남은 문제는 자유연애 상대자인 손보라와의 관계였다. 작가는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을 마련한다. 김종만이 연애 관계를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는 “나와 보라 씨와는 결국 평범한 연애의 희생자가 되어 한 사람의 아내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이 되고 그리하여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그리하여 인생의 고해에 빠지고 마는 데에 우리들의 생의 가치와 존재 이유가 규정되기 싫”(251)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버린다. 이 장면은 연재분에서 볼 수 없는 단행본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종만의 행위는 일상성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화의 말을 빌리면 “일상성의 세계란 속계(俗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거기서 헤어날 수 없고 어떠한 이상(理想)도 그 속에선 일개의 시련에 부닥뜨리지 아니할 수 없는, 밥 먹고, 결혼하고, 일하고, 자식 기르고 하는 생활의 세계”<sup>48)</sup>이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김종만은 생활의 세계가 아닌 이념의 세계 혹은 제3의 길을 선택한 것이 된다. 이것이 추천사에서 제시된 ‘새로운 처방전’인 것이다. 그가 생활의 세계를 거부함으로써 이 소설은 통속 위주의 서사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만약, 장해물이 사라진 상태에서 손보라와 관계를 이어갔다면 생활의 세계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통속 일관에서 벗어나 지향성, 즉 문학의 예술성을 획득하려 시도한다.

물론, 추상적인 결말이라거나 현실 도피적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김종만이 새로 도착한 곳은 어디인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생활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인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를 표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신을 옴아뻐던 고민과 부채 의식을 다소간이나마 떨치고 삶의 태도를 달리하려는 시도 자체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현실’과 ‘약동하는 삶’의 가능성을 문학으로 제안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엄홍섭은 이 소설을 연재한 직후의

48) 임화, 「생활의 발견」(『태양』, 1940.1),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264-265면.

평론에서 현실을 보이는 그대로 그려서는 완전한 리얼리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밀고 나간 “새로운 인간 타입의 발견”이었다.<sup>49)</sup> 이 소설이 당대 논자들에게 고평된 이유도 단순히 현실을 밀도 있게 묘사한 것을 넘어 응전의 가능성과 일상성을 초월하는 태도를 보여줬기 때문일 것이다.

#### 4. 신여성과 구여성, 변화하는 여성들

이 장에서는 여성 인물의 ‘변화’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여성상이 해체되어 가는 시대적 양상을 분석하고 ‘새로운 인간형’의 발견이 남성 인물에 국한되지 않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세기의 애인』의 대표적인 여성 인물은 세 명이다. 첫 번째는 보육 학교 출신의 유치원 보모 손보라, 두 번째는 구여성에서 변모하려는 김종만의 아내, 세 번째는 카페 여급이 되는 전문학교 출신의 박경옥이다. 세 여성 모두 김종만과 관계된 인물이자 식민지 시기 변화하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손보라에 주목해 보자. 손보라와 김종만이 처음 만난 공간은 경성행 기차 안이다. 두 사람 모두 학교와 직장을 위해 상경하는 중이었다. 우연히 김종만의 신분증명서가 손보라의 가방에 흘러 들어가며 둘의 만남은 이어지게 된다. 김종만은 “조선의 신여성도 이제는 제법 처음 대하는 남자와 한자리에서 기분 좋게 대화해 줄 줄 알 만큼 사교적 상식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그는 이 여자의 예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감탄”하며 “현대 여성으로서 순진한 듯한, 조금 쾌활한 듯한, 그리고도 조금 명랑한 듯한 — 그리고도 조금 우울한 듯한 — 고급형에 속할 여자”(16)라고 판단한

49) 엄홍섭, 「문단시감」, 『신동아』 5:9, 1935.9, 174면.

다. 여기서도 ‘우울’이 언급되는데, 시대적 우울이 남성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김종만이 손보라와 대화하며 받은 인상은 ‘조선의 신여성’이다. 손보라가 ‘신여성’으로 수식된 까닭은 그가 김종만을 대하는 태도 즉, 여성이 남성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던 매너와 전문적인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다. 손보라의 직업은 유치원 보모, 지금으로 따지면 교사이다. 김종만과의 대화 내용에서 드러나듯, 손보라는 보육 학교를 졸업하였다. 이는 신식 교육을 받은 인텔리 계층을 의미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속하게 확장된 1920년대에는 ‘유치원 설립 운동’이 펼쳐졌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이 필수적이었다. 1915년 이화학당 내 2년제 유치원 사범과에서 출발한 이화보육학교부터 1920년대 후반 경성보육학교, 중앙보육학교 등의 전문 교육 기관이 연달아 생겼다. 당시 보육학교는 ‘고등보통학교’나 ‘고등여학교’ 졸업 정도의 학력이 있거나 국어, 산술, 작문, 음악 등의 시험과 구술시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입학할 수 있었다.<sup>50)</sup> 졸업 후에는 손보라의 사례처럼 대부분이 유치원 보모로 진출하였는데, 신문에 “교문을 나서는 재원”이라는 표제로 이화, 경성, 중앙의 대표적인 졸업생 사진과 함께 그들의 포부가 실렸고,<sup>51)</sup> “어머니 아닌 어머니의 말씀”<sup>52)</sup>이라는 수식처럼 교사의 중요성과 여성의 인텔리직 면모가 강조되었다.

이처럼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자격을 갖췄음에도 직업 여성인 손보라가 사회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큰 위험은 성적(性的) 유린이었다. 고용주 위치에 있는 유치원의 원장과 원감은 여성 교사들을 교외로 데려가며 희롱을 일삼았다. 갑(甲)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을(乙)인 교사들은 여러 핑

50) 「각 학교 입학 안내: 이화보육학교, 경성보육학교, 중앙보육학교」, 『조선일보』, 1931.2.10, 3면.

51) 「교문을 나서는 재원들, 그들 포부와 감상,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조선일보』, 1932.3.6·10·15, 5면.

52) 「보모 좌담회, 어머니 아닌 어머니의 말씀」(전 5회), 『동아일보』, 1933.1.1-5, 6면.

계를 대며 원장 백관철과 원감을 피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안고 있었다. 이는 비단 직업군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근대적 공적 공간에 등장한 여성을 유린하는 사건은 만연했다.<sup>53)</sup> 권력자의 성폭력 기사도 신문에 자주 오르내렸고, 피해자의 제보도 속출했다.<sup>54)</sup>

성적 유린의 대표적인 예가 원장 백관철이 손보라를 강간한 사건이다. 그런데 사건 이후 손보라의 심리를 보여주는 대목은 인상적이다. 손보라는 복수의 방법을 고민하고,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을 표출한다. 만일 손보라가 ‘정조’ 관념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면 삶을 포기하려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sup>55)</sup> 그러나 이 사건에서 손보라는 엄연한 피해자였다. 누차 백관철을 경계해 왔음에도 유치원 후원자를 만나러 가지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손보라는 직업 여성이 성적 대상화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신문사에 찾아가 사회지도층의 부도덕을 고발하려 한다. 그러나 신문사 사장은 되려 피해자에 쏟아질 지탄을 우려하여 기사화하지 않는다. 이에 손보라는 거처와 직장을 옮기지만 이후에도 명사(名士) 백관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결국 우연히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김종만이 백관

53) “직업 여성에 대하여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것은 정조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에 나타난 일례를 들어보면 18세 된 여점원의 정조 유린에 대한 사건을 볼 수 있다. 거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 종로 어느 상점에 점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상점주에게 정조 유린을 당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조권은 지금 인격권으로 인정되는 바이니 그에 대한 형법상의 제재는 별문제로 하고 침해에 대하여는 민법상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이다.”(「직업 여성 보호의 필요」, 『동아일보』, 1936.3.27, 3면)

54) “직업 여성의 직업을 미끼로 정조를 유린하고도 직업의 여탈을 손에 쥐고 있는 까닭에 안연히 사장의 의자에 앉아서 당당한 신사의 존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 필경 그러한 수단으로 유린당한 처녀가 분연히 직업을 던지고 나와 부모와 동지에게 일장의 고백을 하는 동시에 색마 사장을 걸어 법의 재단을 구하게 되어 북마전(伏魔殿)인 사장실에 숨어 있던 이 색마의 거동이 청천백일하에 전모를 나타나게 되었다.”(「직업의 여탈(與奪)을 호이(好餌)로 여차장(女車掌)의 정조를 유린」, 『동아일보』, 1933.2.2, 2면)

55) 대표적으로 이광수의 『무정』(1917)에서 영체가 자살을 결심하고 평양으로 떠나는 장면을 상기할 수 있다.

철을 몇 대 두들겨 패주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피해자가 상황을 완전히 스스로 돌파했다고는 볼 수 없을지라도, 비로소 가해자 얼굴에 침을 뱉으며 분노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직접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려 분투하고 ‘정조’ 관념으로 귀속되지 않은 점은 여성의 사회적 인식이 이전과 달리 진일보한 대목이다.

두 번째로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김중만의 아내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김중만의 아내는 보통학교 3학년까지 다녔고 18세에 조혼한 전형적인 조선 여성이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서울로 유학을 떠났고 일 년에 한번 고향에 왔을 때도 아내를 돌아보지 않았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이는 없는 상황이었다. 결혼 주체의 의지에 반하는 조혼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었다.<sup>56)</sup> 그런 가운데 이 소설에서 김중만의 아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목이 등장한다. 바로 편지의 발신인으로 등장하여 결별을 선언하는 장면이다.

(…) 나는 일간 친정으로 가 있으라고 부모님이 말씀했습니다. 너무도 부모님은 나를 딱하게 동정하십니다. 친정으로 가기는 부모님의 명령이니 가겠습니다마는 나는 친정에 가서 부모님을 졸라 공부를 하러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가면 혹시 뵈게 되겠지요. 만일 친정에 그것을 거절당한다면 나는 친정에서 뛰어나와 대구 고모 집으로 가서 어떤 공장이든 일자리를 구한 뒤에 내 먹을 것을 내가 벌겠습니다. 만일 그것도 안 되면 나는 새 길을 걷지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면 오직 시들지 않은 청춘을 안고 죽어 버리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지요…….(230)

56) “당돌히 붓을 들은 저는 금년 18세의 소년이올시다. 가정으로 말씀하면 봉건적 인습을 타파치 못한 가정으로 (…) 늙은 부모로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여 나를 결혼시켜려고 합니다.”(“완고한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켜”, 『조선일보』, 1934.1.18, 5면); “조선에는 아직도 조혼의 폐가 많다. 조부모가 죽기 전 손주머리 보기를 원한다고, 또는 늙은 부모가 환진갑(還進甲)을 앞두고 머리 또는 막내머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15-6 내지 13-4세의 철없는 어린아이를 장가보내는 일이 지금도 그리 귀한 일이 아니다.”(“조혼과 미신의 문제”, 『동아일보』, 1934.2.25, 1면)

김종만의 아내가 5년이란 시간을 견디고 내린 결론은 주체적인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시부모의 권유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나 본인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선택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을지언정 서울에 올라가 공부할 생각도, 직업을 구해볼 의지도 갖고 있다. 김종만의 표현대로 “교양이 없는 구여성이면서도 비교적 진보적인 시대 의식에, 비록 막연하나마 똑바로 눈이 뜨인”(231) 그녀는 가정에 속박되지 않은 개인이 되고 경제적 자립을 하는 주체가 되리라고, 혹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선언은 신식 교육과 도시 문명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는 구여성으로서는 파격적인 선택이다. 당시 여성 해방 운동은 주로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확장되고 있었다. 나혜석, 허정숙, 김일엽, 박인덕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소설이 연재되기 6개월 전에 발표되었던 나혜석의 「이혼 고백장」(『삼천리』, 1934.8-9)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물론 신여성의 대표격인 나혜석은 구여성으로 그려진 김종만의 아내와는 처지가 다르며 조혼을 이유로 이혼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아내가 남편에게 직접 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리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나혜석과 같이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 사회적 맥락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가부장적 제도 내에서 아내의 역할은 순종과 헌신으로 표상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변화하고 있었다. 행복이 보장되지 않은 가정을 끝내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성. 김종만의 아내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진취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전문학교 출신의 박경옥을 살펴보자. 박경옥은 콜론타이의 『붉은 연애』를 탐독하고 영문학 모임에도 참석하는 인텔리적 인물이었다. 박경옥은 김종만을 알게 된 후 거의 매일 그의 하숙집에 찾아간다. 영서 독해를 도와달라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김종만의 몸과 마음을 얻는 데 있다. 박경옥의 태도는 소위 ‘조선’하다거나 고분고분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김종만이 미혼인지 떠보며 스킨십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혼

인 여부는 관계치 않고 결국 그를 유혹하는 데 성공한다. 이후 박경옥은 카페 여급이 되는데, 이 상황은 소설 내에서 방중한 여성의 ‘타락’이라고 언급된다. 카페 여급이 ‘윤락’과도 관련 깊던 당시의 세태를 고려하면 그러한 시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문학교 출신의 ‘전락’이라는 관점보다 ‘자유연애’의 실천자이자 주체적인 ‘여성 노동자’로 변화된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급된 대로 박경옥은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상당히 적극적이다. 나혜석이 “정조는 도덕도 법률도 아무것도 아니오, 오직 취미다.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떡 먹고 싶을 때 떡 먹는 거와 같이 임의용지(任意用志)로 할 것이오, 결코 마음의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다”<sup>57)</sup>라고 급진적인 태도를 표현했듯, 박경옥의 행위도 주체적인 선택 중 하나였다. 김종만은 박경옥과 함께 밤을 보냈지만, “불같은 본능의 힘에 이끌”린 것이고 “새빨간 고깃덩이뿐”(100)이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무의미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박경옥만이 지탄의 대상이 될 순 없을 것이다.

또한 카페 여급이라는 직업에 대해 장소보다 ‘노동자성’에 초점을 두면 해석의 지평이 넓어진다. 근대 도시 경성에서 192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카페는 확장세였으며 여급은 신중 직업이었다. 1934년에는 여급이 중심이 된 잡지 『여성(女聲)』이 발간되기도 했는데, 이 잡지의 창간 목적은 여급들의 직업 여성으로서의 긍지와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있었다.<sup>58)</sup>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서 소비와 향락의 업종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이다. 문제는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과 노동의 ‘착취’이다. 실제로 1932년 카페 ‘아리랑’에서는 지배인의 횡포로 인해 여급 32명이 동맹 파업을 단행하였다.<sup>59)</sup> 1934년에도 본정(本町, 충무로)의 한 카페에서 대

57) 나혜석, 「신생활에 들면서」, 『삼천리』 7:2, 1935.2, 74면.

58)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여급 잡지 『여성(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3, 한국여성학회, 2003, 31-70면.

59) 「아리랑 여급, 30명 맹파(盟罷)」, 『동아일보』, 1932.7.19, 7면; 김정화, 「여급의 등장과 목소리

우 개선과 해고 여급의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나기도 했다.<sup>60)</sup> 요컨대 노동자가 자신의 의지로 구직을 한 경우라면 기형적인 수익 구조에서 발생하는 착취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 소설에서 전문학교까지 졸업한 박경옥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연유로 여급이 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경옥의 친구 보전이 학비 문제로 인해 전문학교를 관두었듯,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카페 여급이 된 설정 이면에는 경제력을 갖춘 주체가 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연애를 신봉 혹은 왜곡한 박경옥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그의 직업 선택에는 유희적 욕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박경옥은 자기 욕망과 의지에 충실한 인물이자 속내를 숨기지 않는 솔직한 성격을 가졌다. 극적인 변화에서도 숨거나 도망치지 않는 새로운 인물형이라 볼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엄홍섭의 『세기의 애인』은 인텔리 청년 남녀의 방향과 변민을 담고 있다. 굵직한 요소로는 1930년대 중반의 취업, 연애, 결혼 문제가 다뤄졌다. 엄홍섭이 연재 시에 제목을 ‘고민’이라 붙인 후 단행본에서 ‘세기의 애인’으로 수정한 데에는 특수한 개인이 아니라 시대가 출현시킨 인물 군상의 면모를 부각한 의도가 있었다. 식민지 조선의 인텔리 청년이 겪는 내·외적 고민과 근대적 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여성 인물형을 여럿 제시한 데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단행본은 연재분과 달리 24장 중반부터 내용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서 김종만의 변전과 여성 인물의 변모가 주요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새로운 인물형’을

가 지나는 문학사적 의미 고찰, 『문학이후』 1, 선문대 문학이후연구소, 2021, 87-119면.

60) 「도색(桃色) 쟁의」, 『조선일보』, 1934.1.20, 2면.

통해 리얼리즘이 추구해야 하는 바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다.

『세기의 애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열쇳말은 ‘리얼리즘’과 ‘로맨티시즘’이었다. 엄홍섭은 진정한 리얼리즘에 대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현실’을 그려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시대와 불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응 방식을 마련하려는 의미에 가까웠다. 물론 소설의 내용이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상통한다거나 ‘혁명적 로맨티시즘’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었다. ‘사회주의’를 목적으로 둔 소설은 1935년 시점에서 발표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선택한 ‘리얼리즘’은 현실을 밀도 있게 묘사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파내고 캐내”는 방식이었다. 소설에서 “새로운 인간을 탐구하고 새로운 인간 타입을 발견”<sup>61)</sup>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김종만, 손보라, 김종만의 아내라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은 표면적으로 통속적인 요소를 여럿 갖추었다. 인텔리 청년과 신여성과의 연애 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혼한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거저에 흐르고 있다. 또한 자본가의 악행, 여성 인물의 위기 상황에 구원자로 나오는 남성 주인공까지, 민병희의 비판에서처럼 얼핏 보면 이 소설은 도식적이고 단순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 소설의 결말은 ‘통속’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남성 주인공은 신여성과의 사랑을 중단하고 홀연히 일상의 세계를 떠난다. 조혼한 아내를 가정을 박차고 나갈 것을 선언한다. 기존의 관계가 절연되며 개인으로서 주체 정립을 시도하는 마무리이다. 사회를 떠난 개인을 상상할 수 없듯, 인물들은 새로운 그리고 미지의 사회에서 다시 자신을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을 암시한다.

엄홍섭은 이 소설을 통해 방황과 번민 끝에 다시금 삶의 방향성을 설정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면은 연재에서는 발견할

61) 엄홍섭, 「문단시감」, 『신동아』 5:9, 1935.9, 174면.

수 없는 단행본만의 특징이다. 또한, 덧붙인 내용에서 의도적으로 ‘세기(世紀)’를 반복하며 시대성을 띤 고민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소설의 주제 의식과 초점을 부각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엄홍섭은 ‘연애’라는 ‘통속’적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과 그 너머의 영역을 사유하였고, 이것이 그가 말한 인생의 진실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로써 이 소설은 ‘통속’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새로움을 전제로 한 ‘예술성’을 획득하였다. 응전의 가능성과 일상성을 초월하는 태도가 형상화된 양상은 ‘리얼리즘’의 ‘심화’로 의미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동아일보』, 『삼천리』, 『신동아』,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엄홍섭, 『세기의 애인』, 영창서관, 1940(재판).  
엄홍섭, 『한국해금문학전집 7: 엄홍섭』, 삼성출판사, 1988.  
엄홍섭, 이승윤 편, 『엄홍섭 선집』, 현대문학, 2010.  
엄홍섭, 김미연 편, 『세기의 애인』, 홍시, 2023.

2. 단행본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박선영, 나병철 역, 『프롤레타리아의 물결: 식민지 조선의 문학과 좌파문화』, 소명출판, 2022.  
박진숙, 「조선적 상황과 엄홍섭 문학」, 김인환 외, 『주변에서 글쓰기와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논문집』, 민음사, 2006, 315-352면.  
이승윤, 「추방과 탈주, 경계인의 문학적 실천: 엄홍섭론」, 엄홍섭, 이승윤 편, 『엄홍섭 선집』, 현대문학, 2010, 389-412면.  
임 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 3. 문학의 논리』, 소명출판, 2009.  
정호웅, 「엄홍섭의 농촌 현실 증언과 휴머니즘」, 엄홍섭, 『한국해금문학전집 7: 엄홍섭』, 삼성출판사, 1988, 402-411면.

3. 논문

- 권보드레, 「1930년대 후반의 프롤레타리아작가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4.  
김윤진, 「해방기 엄홍섭의 언어의식과 공동체의 구상」,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연구소, 2016, 405-444면.  
김재용, 「식민지시대와 동반자 작가: 엄홍섭론」, 『연세어문학』 20,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1987, 145-172면.  
김정화, 「여급의 등장과 목소리가 지니는 문학사적 의미 고찰」, 『문학이후』 1, 선문대 문학이후연구소, 2021, 87-119면.  
박선애, 「엄홍섭 소설 연구」, 숙명여대 석사논문, 1992.  
박진숙, 「1930년대 한국 동반자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0.  
박진숙, 「엄홍섭 문학에 나타난 동반자적 성격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 국

어국문학과, 1991, 99-114면.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여급 잡지 『여성(女聲)』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9:3, 한국여성학회, 2003, 31-70면.

이승윤, 「엄홍섭 소설의 변모양상과 해방기 귀환서사 연구: 「귀환일기」와 「발전」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9, 171-196면.

장명득, 「『군기』 사건과 엄홍섭의 초기 소설」, 『배달말』 34, 배달말학회, 2004, 99-123면.

장명득, 「엄홍섭 소설 연구」, 경남대 박사논문, 2007.

조명기 · 이재봉, 「엄홍섭 단편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소멸 양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43, 한국문학회, 2006, 258-289면.

조명기 · 이재봉, 「엄홍섭 초기 지식인 소설 연구」,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401-426면.

#### 4. 기타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7077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출판물 금지 요항: 『과경』」, 『조선출판경찰월보』 119, 1938.7.8.  
[http://db.history.go.kr/id/had\\_110\\_0190](http://db.history.go.kr/id/had_110_0190)

<Abstract>

Intensifying the ‘Realism’ through ‘Popularity’  
– Rereading Eom Heung-seop’s *The Lover of the Century* (1939)

Kim, Mi-ye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read Eom Heung-seop’s novel *The Lover of the Century* (1939) and examine the method of realism pursued by the writer on the premi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serial and the book. Previous studies, because they mainly analyzed serials, did not analyze in detail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the characters and the way they cope with reality, and defined the attitude of the male protagonist as the characteristic of the work, so there was a need for re-reading.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following content was discussed. First, I looked at how this novel was evaluated by commentators at the time. As a result, there was a coexistence of the positive evaluation that it harmonized popularity and art, and the criticism that it was a schematic and bourgeois love novel. During this period, Eom Heung-seop pursued a creative approach that fused ‘realism’ with ‘romanticism’ and insisted on depicting ‘what should be’ in his novels rather than ‘what is’. Secondly, I focused on the characters to identify the points where the author’s orientation was reflected in the novel. I confirmed that this is a universal problem, not a particular individual one, by examining the scene where male and female intellectuals struggle with employment and dating problems. In particular, the scene in which a male character leaves real space for a new place and the scene in which a female character tries to overcome the bondage of relationships are important in that they suggest

the possibility of transcendence. Ultimately, this article attempts to read the possibility of 'changing lives' through close observation of the characters and interprets the work as a reality-reflective novel.

Key words: Eom Heung-seop, Popular fiction, Realism, Awareness of reality, Educated person, Modern woman, Intelligentsia

투 고 일: 2023년 8월 6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